

■ 광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전남

기아차 수출 10~20% 늘 듯

한우산업 손실 年 367억 달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광주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체적으로 자동차를 비롯해 에어컨·냉장고 등 생활가전 등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으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현대차 엘라바라 공장 자동화 기아차 조립공장 자동화공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지도 상승 등에 따라 수출증대 효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2004년 하반기부터 스포티지를 생산한 광주공장의 경우 미국수출량은 같은 해 12월 4천대에서 2005년 4만4천대로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전체 수출량 19만8천대 가운데 32.3%인 6만4천대가 미국방향을 뺐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올해 25만2천대의 수출량 가운데 EU와 미주시장이 각각 절반씩 점유할 전망"이라며 "이번 FTA 타결로 광주공장의 대미 수출량이 지난해에 비해 10~2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차의 수입관세가 8% 감면되고, 취득단계에서 특별소비세·부과세 등 관련 세금이 동반인하돼 공급가격기준 10.5%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생산규모가 연간 330만대에 달하는 도요타·혼다·닛산 등 미국내 일본제품이 우회수입될 경우 광주공장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분야의 경우 양국간 상품교역에는 이미 관세가 없는 품목이 많고 관세가 있더라도 제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보통 미국에 수출되는 생활가전 관세는

에어컨·냉장고 등 관세낮아 수혜 미미

1~2%에 불과할 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경우 대부분 미국으로 가는 제품을 나프타(NAFTA) 협정 체결국인 멕시코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하고 있어 관세와 무관하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관세수준도 낮은데다 냉장고·에어컨 등 우리나라 제품이 이미 미국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한미FTA 타결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미국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기계 및 전기기계 업종, 금속업종, 정밀화학업종 등에 종사하는 한남산단내 중소기업은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1~3% 절세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H정밀 대표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국산 첨단기계류의 수입으로 기술개발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신기술·제품으로 무장할 경우 우대할 미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제조업·서비스업 등 큰 변화 없어

전남도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됨으로써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가격 불안정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 사실상 전남지역 농촌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남도가 농촌경제연구원 발표를 근거로 최근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FTA가 타결됨으로써 전남지역 농업부문의 생산감소액은 단기적으로는 최소 1천781억 원에서

최대 3천370억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최소 1천413억 원에서 최대 2천965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같은 피해액 규모는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전남도의 농업생산액 중 5%를 넘는 것이며, 특히 한우산업의 경우 FTA타결로 인해 연간 생산액의 8% 수준인 367억 원 정도가 감소하는 등 축산업 부분의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도는 지역 농업부문의 경우 쌀·보리 위주의 생산구조와 낮은 농가소득, 취약한

유통구조, 농가인구 노령화 가속, 농업기반 시설 미흡 등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앞으로 수출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지역 총 생산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 현재까지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학제품 생산분야에 큰 변화가 없는데다 섬유와 의복, 가죽, 목재 분야도 FTA타결이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프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종이 제품 생산분야나, 중·소규모 조립제품산업은 관세철폐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기업에 대한 납품에 의존하거나, 내수판매를 위주로 해온 일부 중소기업들은 값싼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시장에 직접 노출됨으로써,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FTA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FTA는 지역 농업부문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고속터미널을 찾은 시민들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알리는 TV 화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우리경제 새로운 도약 계기” 환영

■ 재계·경총 등 찬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 지도자들과 경제단체,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국회 비준 등 향후 일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FTA를 국의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는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FTA협상 타결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번 협상 타결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경총은 이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국민들도 우리 경제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적극적인 자세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 농업부문의 경우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상의는 "이번 협정 타결은 국익차원에서 볼 때 한미간 교역 활성화와 기업들의 기술,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재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남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주택건설업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부문의 수출 확대가 국내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영향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득 목포시장도 "세계화·국제화 추세를 감안하면 과감한 경제개방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농업과 축산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전남농업 치명타...비준 저지 총력”

■ 지역농민단체 등 반대

광주·전남 농민단체들은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소식이 격양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곧바로 국회 비준 저지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한미 FTA종단 광주·전남운동본부는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살기 어려운 것은 성장 중심주의와 세계화 때문인데 FTA는 세계화의 결정판"이라며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향후 투쟁방향으로 ▲국회를 상대로 한 비준거부 운동 ▲국민들을 상대로 FTA

위협성 폭로 ▲정권퇴진 운동을 제시했다.

이들은 오는 7일 광주시 동구 급남로 일대에서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가하는 항의집회를 갖는다. 운동본부는 이에 앞서 3일 오전 11시 전남지방경찰청 앞에서 한미 FTA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상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장은 "이번 FTA타결안이 확정될 경우 전남 농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쇠고기의 경우 전남 축산농가에서만 1천억원대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한라봉을 비롯한 과수부문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타결안이 국회에서 비

준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명수 광주축협조합장은 "과거 한·칠레 FTA의 경험을 되살려 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남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비록 짧은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쇠고기와 축산물, 과일 등에서 미국측에 크게 양보해 유감스럽다"며 "국회 비준과정에서 부결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LU-UNIVERSITY TESOL advertisement with website www.aluuniversity.com

동아외국어학원 advertisement for TOEIC and TOEFL preparation

시몬스침대광주 금남로점 advertisement for Simmons beds

사우스베이 안의대 advertisement for South Bay Eye Center

동아외국어학원 advertisement for TOEIC and TOEFL preparation